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 학위논문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박 준 혁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aturday Sports club on emotion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박 준 혁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안 용 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박 준 혁

박준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명 수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현 우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안 용 덕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변인	4
4. 연구의 가설	5
5. 용어의 정의	6
6.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9
1. 토요스포츠 이론적 배경	9
1) 토요스포츠의 이해	9
2) 토요스포츠의 기대효과 및 만족도	11
2. 정서 발달의 이론적 배경	13
1) 정서의 개념	13
2) 정서 발달 과정	14
3) 정서 발달의 종류 및 부적응 행동	15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17
2. 연구도구	18
3. 조사절차	22
4. 자료분석	22
IV. 연구 결과	23
1. 토요일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23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24
3. 토요일스포츠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27
4. 토요일스포츠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29
V. 논의	31
VI. 결론 및 제언	35
참고 문헌	38
부 록	41

표 목 차

〈표 1〉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체결 주요 내용	10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8
〈표 3〉 설문지 구성내용	19
〈표 4〉 정서 발달 신뢰도 분석	21
〈표 5〉 참여유무에 따른 정서발달 차이	23
〈표 6〉 성별에 따른 정서발달 차이	25
〈표 7〉 학년에 따른 정서발달 차이	26
〈표 8〉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27
〈표 9〉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2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5
〈그림 2〉 토요일프로그램 학생 참여율 추이	12
〈그림 3〉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2

ABSTRACT

The effect of Saturday Sports club on emotion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k Jun Hyuk

Adivisor : Prof. AHN, Yong-DUK,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analyzing the effect of participating in Saturday sports on emotional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total 428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220 students who participate in Saturday sports and 208 students who do not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among 4th, 5th, and 6th grade students in Jeollanam-do in 2015, and this study modified and supplemented <A Scale of Emotional Respon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verified validity that Kim, Mi Kyung(1985) and Kang, Han Kyung(1996) reconstructed and standardized based on Abrahamse(1970)'s Scale of Emotional Disturbance Symptoms and Wolman's(1978) Children's Fears.

For data processing, this study conducted credibility verification by lower variable of factors set in this study, calculat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and the results of analyzing when there was difference in variance analysis result using Scheffe's Post hoc t-test are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aturday sport activity showed higher emotional development than students who did not, and showed difference in subfactors as pure emotional response, phobic emotional response, avoidance emotional response, affection emotional response, social emotional response, aggressive emotional response, and misdeed emotional response.

Secondly,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part for emotional development(pure emotional response, phobic emotional response, avoidance emotional response, affection emotional response, social emotional response, aggressive emotional response, and misdeed emotional respons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gender, grade level) of research participants.

Thirdly, emo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time in Saturday sports activity showed difference in part,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subfactors of emotional development as pure emotional response, avoidance emotional response, social emotional response, and aggressive emotional response.

Fourthly, emo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time in Saturday sports activity showed difference in part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subfactors of emotional development as pure emotional response and social emotional response.

It was identified that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aturday sports activity makes positive effect on healthy mind and healthy body through physical and emotional experience, and creating continuous environ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release their energy and to do physical activities freely will produce more desirable result in emotional developmen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량 활동들을 확대 및 증설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특기 및 적성에 따른 교육들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 개편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교라는 제한적인 공간과 틀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학생들 스스로 실험, 관찰, 조사, 연구,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을 심화, 보충하도록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활동 중심 교육 과정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 내적인 부분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주 5일 수업제 연구시범학교 운영보고서, 동명중학교, 2003).

주5일 수업은 단순히 학습시간 단축이나 휴업일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변화의 빠른 시대적 적응에 따라 교육적 배경에서도 교육 의식의 전환으로 여가시간을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줄어든 수업일수와 늘어난 휴일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축소된 수업일수와 늘어난 휴일에 대응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및 수업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 이러한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앞서 2011년 시범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차원에서 토요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요일에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 약 39%는 학생들이 스포츠 및 레저 여가 등의 체육 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였고, 약 45%의 학생들이 스

포즈 및 체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선호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는 스포츠 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토요일휴업일을 토요일스포츠데이로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토요일스포츠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들이 희망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및 여건을 제공하여 튼튼한 건강 및 체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스포츠맨십, 배려, 나눔 등)을 함양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현대사회를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적능력이 향상되면서 정서함양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정서를 지능화의 한 부분으로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아졌다.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서로 공감할 줄 알며 삶을 행복하게 이루는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 감정표현을 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적응적이고,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Kringsdal, 1994). 즉 정서를 명확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관한 갈등이 적으며, 문제를 야기하는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에 변화해야 할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지지를 원하며, 자존감이 높으며 불안이나 신경증이 덜하고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표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winkels Giuliano, 1995).

아동기는 전체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발달하는 폭이 크며 습득이 빠른 성장기로서 어떠한 환경을 접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이로써 성격발달, 인격발달, 정서발달이 가능하게 된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보다 좋은 인성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서 발달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이현아, 2010).

따라서 토요일휴무일 시행에 따른 토요일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실태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 되게 실시되어 토요일

포즈 활동의 의미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적 방향의 모델 개발은 이 문제의 실질적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정서발달에 내면적인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요일스포츠 참여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분석하여 청소년기에 부합된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규명 하는데 있다. 주 5일제 학교 수업 외 시행되고 있는 토요스포츠에 참여 하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정서발달 조사를 통해 토요스포츠 참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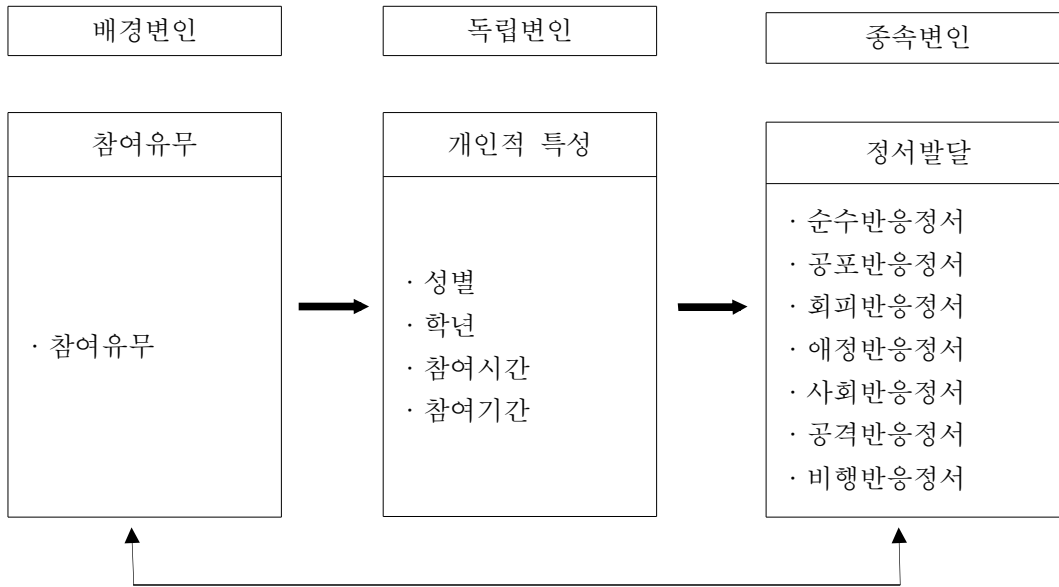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유무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는가?
- 둘째, 토요스포츠 활동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는가?
- 셋째,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시간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는가?
- 넷째,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기간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변인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배경변인으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으로 설정 하였고, 토요스포츠 참여와 정서발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참여유무, 참여시간, 참여기간)와 종속변인으로 정서발달과 각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전체 변인 간 관계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의 가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유무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는 성별, 학년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시간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기간에 따라 정서발달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토요일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연구목적에 따라 관련된 변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 토요일스포츠

토요일스포츠는 일선 학교에서 2012년도부터 토요일에 실시되는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활동에 취미 및 흥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하고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스포츠 조직들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2) 정서

정서(emotion)란 공포, 분노, 질투, 애정, 환희 등과 같은 불쾌한 감정, 충동 및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매우 강하며 일시적이고 호흡, 맥박, 안면의 표정과 기타 생리적 현상이 뒤따르고, 지각, 성격 등에 영향을 준다(Plutchik, 1980).

① 순수반응 정서

순수반응 정서는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자신이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정상적인 행동 및 모범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정서이다.

② 공포반응 정서

무서움 및 두려움 등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정서로서, 허상이나 지어낸 이야기들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정서이다.

③ 회피반응 정서

수줍음을 잘 타지 않으며 적극적 성향이 강하고, 남 앞에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 등에서 관찰되는 정서이다.

④ 애정반응 정서

질투심보다 애정의 마음이 많고, 자신의 물건 및 소유에 대한 지나친 독점욕이 없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고로 남을 이해 및 애정에 반응하는 정서이다.

⑤ 사회반응 정서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갖고, 우정관계를 잘 형성하며, 단체 활동에서 보이는 적극성을 반응하는 정서이다.

⑥ 공격반응정서

일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성향이 적고, 욕을 하거나 비열하게 느껴지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 이해심이 큰 쪽으로 반응하는 정서이다.

⑦ 비행반응정서

학교생활에 불만을 갖지 않으며, 결석이나 거짓말을 잘 하지 않으며, 남의 물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는 정서이다.

6.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연구변인, 연구대상 등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지역의 초등학생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할 경우, 설문지에 반응하는 과정 중에 문장 독해 능력과 응답능력이 떨어져 자료수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사대상은 설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연구는 저학년(1~3학년)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이므로 설문지법의 한계인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치우치기 쉬운 점과 응답자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토요 스포츠 이론적 배경

1) 토요스포츠의 이해

2012년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적인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하였다. 주 5일 수업이란 일주일에 5일만 등교하여 정규 교과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주일중 5일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2일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들로 학교 학습을 심화, 보충하고(교육인적자원부, 2012) 이는 학생들이 경험의 장을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 자연, 취미등과 같은 문화생활 으로 확대함으로서 자기 생각에 따라 계획하여 생활체험, 사회체험, 자연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학교 운영 방법이다(정강, 2012).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에 가정과 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교육공동체 의식을 갖고 활동하면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오세경, 2013). 하지만 학교가 교육적 책무성을 포기한 채 학교 외 교육활동들의 중요성 및 체험활동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여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무책임하게 유출되어 버리는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 5일 수업제를 통하여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도록 도움으로써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지향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박영춘, 2003).

주5일 수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토요스포츠데이, 문화학교, 체험학교, 토요 방과 후 학교 등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스포츠 활동 수요가 증

가함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일선 선생님 외 토요일스포츠강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및 대학에서는 학교체육교육과 토요일스포츠클럽을 위해 체육시설과 강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현재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였다. 토요일스포츠클럽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들이 희망하는 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튼튼한 체력향상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스포츠맨십, 배려, 나눔 등)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체·덕·지를 겸비한 학생들로 양성하는데 문화체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적으로 대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체육도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저하, 학교폭력,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요일스포츠가 시행 초기에 잘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표1 .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업무협력 체결 주요 내용〉

구분	학교현황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 현황					
	학교 수 (교)	학생 수 (명)	배치운영 학교 수(교)		강사 수 (명)	프로그램 수 (개)	참여 학생 수(명)	
초	5,882	3,132,477	965	16.4%	976	1,971	91,861	2.9%
중	3,165	1,910,572	2,806	88.7%	2,834	4,544	138,598	7.3%
고	2,296	1,943,804	246	10.7%	280	752	43,967	2.3%
특수	155	24,617	117	75.5%	94	176	2,862	11.6%
합계	11,498	7,011,470	4,134	36.0%	4,184	7,443	277,288	3.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 토요스포츠의 기대효과 및 만족도

교육과학기술부(2011)에 따르면 토요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요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모든 학생은 토요스포츠 활동을 참여하여 개인의 운동 기능을 발휘하고 향상, 숙달 시킬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 받아 정규 체육시간에 학습한 운동 기능들을 보다 심화 숙련시킨다.

셋째, 여러 사회적 행사와 남, 여 공동의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격,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학교 폭력과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 할 수 있다.

넷째, 주말의 자율 체육활동은 건강한 여가 활동의 방법이다. 즉 토요스포츠 참여를 통해 건전하게 여가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의 안일한 소비와 사회적 비행을 예방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07)에 의한 토요스포츠 운영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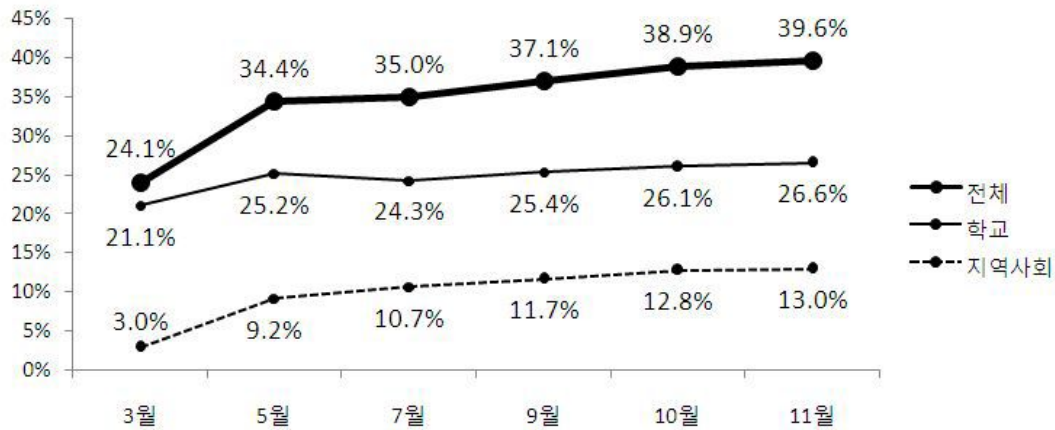
첫째, 토요스포츠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가족 구성원 유대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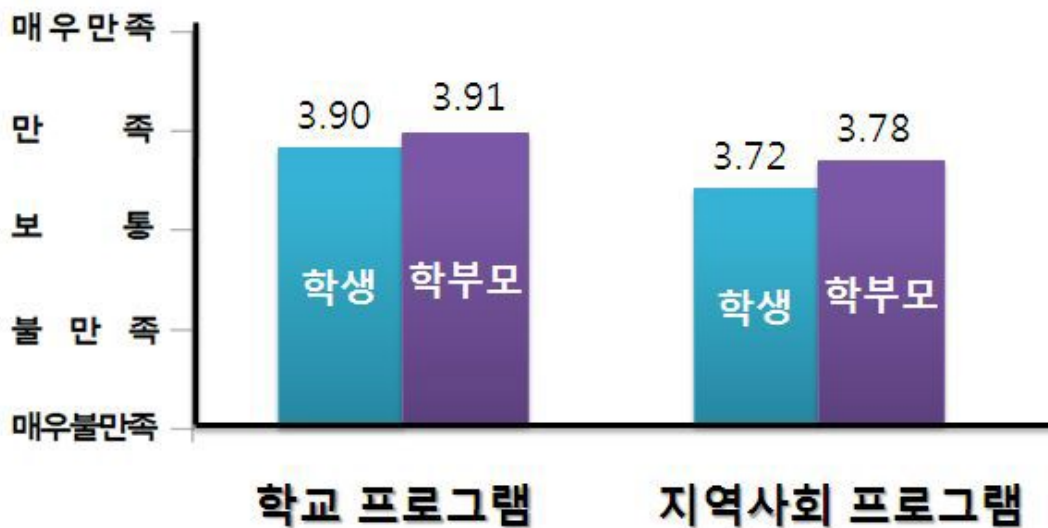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 능력 함양, 체험학습 활동을 통한 진로 개척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방침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시행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창의성, 인성 함양 등 건전하고 즐거운 주말 여가 문화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매월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학생들이 토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중에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문화, 예술, 체험활동 등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면들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들의 만족도도<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토요프로그램 학생 참여율 추이>



<그림 3.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 정서발달의 이론적 배경

1) 정서의 개념

정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및 적응행동과 공개된 생리적 변화, 그리고 도구적이며 표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충동적 행동들의 특성을 포함하는 심리상태이다 (Iazarus, 1969). 의식적인 여러 경험 및 감정이 신체 내에 생리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의 감정 동요를 의미한다. 즉 기쁨, 쾌감, 두려움, 화냄, 우울감 등의 여러 느낌이나 감정이 표정 및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서의 어원은 라틴어 *emotus*(감동시키다, 뒤흔들다, 흥분시키다)에서 비롯되었고 감정, 정서, 감동이라는 일련의 어휘는 감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감정(feeling)이란 용어는 정적 경험의 총칭으로 쓰이는 일들이 많다(이정덕, 1980).

정서에는 네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첫째, 유기체 내부의 생리적 동요로써 이것들은 정서표출의 호흡, 맥박, 내분비, 안면표정 등의 변화를 말한다. 둘째, 자극 대상들이 물체뿐만 아니라 기호, 언어, 문장, 사회조건, 관념, 기억 등이 포함되고, 셋째는 자극으로서 자극의 대상들이 유기체 내부에 유발하는 감정체험이다. 넷째 정서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공격적 파괴행동, 분노와 같은 행동, 연애, 기쁨과 같은 정서표출, 공포의 정서에 나타나는 도피반응, 우울 및 비탄의 정서표출에 보여 지는 반응의 정지가 있다(Plutchik, 1980).

정서의 발달은 성숙에 대한 학습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학습이 중요하다. 성숙요인으로는 내분비선, 상상력, 이해력, 기억력, 예측력의 발달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시행착오(trial), 모방(imitation), 동일시(identification), 조건화(conditioning), 훈련(training)의 학습요인 등에 의해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Hurlock, 1978).

Mandler, Johnson(1997)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생각, 행동의 흐름이나 간섭 또는 차단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이러한 것들이 생리적 촉발, 즉 흥분상태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촉발을 평가 및 해석하여 우울이나 기쁨과 같은 정서들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2) 정서 발달과정

정서발달이 어떤 과정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한 부분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Rapaport(1942)는 정서가 처음 부분화에 흥분이 성장함에 점점 분화한다고 하였다. 즉 생후 3개월이 되면 흥분이 쾌감, 불쾌, 흥분으로 분화되며, 5개월이 되면 불쾌에서 분노, 혐악함, 무서움의 정서가 분화되며, 생후 5년이 되면 부끄러움, 걱정, 질투, 분노, 부러움, 실망, 불만, 혐오, 흥분, 애정, 친구나 부모의 애정, 바램, 즐거움, 기쁨, 쾌락 등과 같이 성인이 갖고 있는 정서의 대부분을 나타낸다.

둘째, 여러 정신 분석학자들은 정서의 본질적인 것이 어릴 때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Freud(1971)는 어릴 때 애정을 주는 방식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의 개개인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셋째, 어릴 때의 정서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서로 발달 및 변화한다는 주장을 부정한 Kretschmer(1925)는 체질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통사람들은 어릴 때의 정서적 경험들이 대부분 무의미한 것이 되거나 망각, 잃어버리지만 신경증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의 체험이나 경험을 기억, 보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시대의 성숙과정이 적대적, 불안정하게 억압되면 어릴 때의 심리적 상처가 발견되고, 즉 어릴 때의 정서가 청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일단 여과작용을 거친다고 하였다.

넷째, 정서의 발달은 특정한 기초적 시기가 없고, 어떤 정서는 사라지고 다른 정서가 생긴다고 Jersild(1950)는 주장하였다. 각 발달 단계에는 그에 반응하는 정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Lewin(1951)도 물리론을 설명하면서 발생 할 조건들만 있으면 정서는 언제든 발생하고, 아동과 성인 사이에 정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연령과 정서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의 발달은 분화, 중심성 이외에 사회화적 관점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Paulhan(1963)은 유기화, 정신화, 사회화를 구별했는데, 이것들은 생물 유기체가 기 때문에 개개인의 본능 그리고 원망은 신체에 조화롭게 유기화 되어야 하고, 본능 및 원망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전체로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술을 먹고 음악을 듣고 흥얼거리면서 철학을 생각하는 것이 정신화이며, 사회화는 그것들이 사회집단의 규칙이나 기준에 맞아야한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정서는 유기화, 정신화, 사회화에 의해 발달 된다고 주장한다.

3) 정서 발달의 종류 및 부적응 행동

인간이 다양한 개개인의 적응행동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발달을 기본범주 8가지로 분류한 Plutchik(1980)은 개개인의 정서가 서로 표출 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인간 환경에 변화하고,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두려움(fear), 놀람(surprise), 비애(sadness), 혐오(disgust), 기쁨(joy), 수용(acceptance) 등이 그것이다.

Plutchik(1980)의 정서 환(環)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정서들은 서로 정반대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서로가 더 유사하다. 이러한 정서들은 각각의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범주 내에서도 서로 강도가 다르고, 이를 3차원의 수직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높은 강도를 가진 강력한 정서로는 격노, 지속적인 경계, 기쁨, 찬미, 공포, 경악, 비탄 및 지겨움 등이 있으며 강도가 낮은 정서로는 우수, 주의산만, 권태, 괴로움 등으로서 정서의 구분들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즉 비슷한 범주의 정서라도 서로 각기 다른 강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 할 수 있는 정서의 범위들은 광범위하다. 또한 인간이 환경 변화에 적합하며 대응하도록 행동의 방향들을 부여하고 활성화하는 요인이 정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들이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자극들에 대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 정서적 부적응 행동

들을 일으키게 된다.

Reinert(1976)는 아동이 자신의 긍정적 발전과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정서적으로 위축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정서 부적응이라 하였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정서적 불안정, 심리적 동요로 인해 공격적이고 위축되며 산만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 힘들어지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인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초기에 개선 및 변화 되지 않으면 반복 행동에 대한 점차적으로 고정화 되며, 성격의 자아구조 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병을 유발하게 되며, 심지어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성장 돼가면서 정서의 올바른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정원식, 1969)

Plutchik(1980)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비사회적인 공격적 행동들로 권위에 반항, 권력적인 상징 즉, 경찰이나 교사 성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죄의식을 가진 행동이다. 그리고 둘째, 사회화된 공격적 행동들로 이것은 비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모임이나, 집단의 동료들과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며 셋째, 지나치게 수줍어하며 민감하며 개인적, 독립적 위축된 행동이다.

Kirk(1972)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들을 공격적, 퇴행적, 신체적 징후, 위축되며 고립된 행동, 두려움의 5가지 표현으로 정의하였고, Reinert(1976)는 남을 때리거나 공격적, 파괴하는 과잉행동, 침묵 및 손가락을 빠는 등의 위축행동 및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는 방어적 행동 및 자폐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혼란행동들로 정서적 부적응 행동들을 분류하였다. Lazarus(1976)은 정서 부적응은 일반적으로 적대적 공격, 환상으로서의 퇴행, 완전주의, 퇴보, 억압, 비현실적인 공포, 복통이나 두통, 사건 등을 자주 일으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분열적행동(uncommunicative), 강박행동(compulsion), 지나친 행동(hyperactive), 공격행동(aggressive), 비행(delinquent)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 행동들은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 나타 날수도 있고, 때로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대상, 조사도구, 연구진행절차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5년 현재 전라남도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11~13세의 초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전라남도 6개교를 추출한 다음, 전체 484명을 표집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조사된 설문결과는 자료의 코딩 과정을 통해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 내용의 일부 누락된 설문지 56명을 제외한 총 428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2> 와 같다.

〈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변 인	구 분	N	백분율(%)
토요스포츠 참여유무	참여	220	51.4
	비참여	208	48.6
소 계		428	100.0
성별	남학생	130	59.1
	여학생	90	40.9
학년	4학년	54	24.6
	5학년	70	31.8
	6학년	96	43.6
토요스포츠 참여시간	40분(1교시)	42	19.1
	80분(2교시)	38	17.3
	120분(3교시)	30	13.6
	160분(4교시)	110	50.0
토요스포츠 참여기간	3개월 이하	66	30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34	15.5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42	19.1
	12개월 이상	60	27.3
	24개월 이상	18	8.2
소 계		220	100.0
합 계		428	100.0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이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2문항, 토요스포츠 참여 유무 3문항, 정서발달 40문항 등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 지표 및 내용은 <표 3> 과 같다.

< 표 3. 설문지 구성내용 >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항수	
개인적 특성	성별 학년	2	
토요스포츠 참여	참여 유무 참여 시간 참여 기간	3	
정서발달	순수반응정서	6문항	총40문항
	공포반응정서	9문항	
	회피반응정서	5문항	
	애정반응정서	6문항	
	사회반응정서	5문항	
	공격반응정서	4문항	
	비행반응정서	5문항	
합 계	총45문항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학년으로 구성하였다.

나. 토요스포츠 참여

토요스포츠 참여 유무, 참여 시간, 참여 기간으로 구성하였다.

다. 정서발달

정서발달의 연구 도구로는 Abrahamse(1970)의 정서장애증상척도 Wolman(1978)의 Children's Fears(아동 공포척도)를 기초로 하여 김미경(1985), 강한경(1996)이 재구성하여 표준화시킨 <초등학생의 정서반응 척도> 문항에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내적타당도 검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가. 설문지의 타당도

이 연구의 사용된 설문지는 강한경(1996)이 재구성하여 표준화시킨 <초등학생의 정서반응 척도>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설문 내용의 적합성 및 설문내용이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완성하였다. 이 연구의 예비검사에서는 전라남도 소재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중 40명을 선정한 후 이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한 문항씩 그 개념을 설명한 후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 및 문장 내용을 지적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문항 구성이 해당 개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문항들이 특정 내용 영역 중 독특한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 주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본 검사 설문지에 반영하여 설문지 초안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 설문지의 신뢰도

신뢰도는 연구방법을 정립하는 우선 생각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조사대상의 인지적 경험들을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며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할 여지가 많다. 신뢰도는 안정성, 종속성, 예측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개념에 대한 측정만을 반복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치를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정용각, 1997)

이 연구에서 신뢰도 측정은 재검사를 통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였고,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추정할 수 있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동일 개념의 측정을 위해 여러 개의 항목들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서 제외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통계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7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데, 성태제(1996)에 의하면 .2~.4이면 신뢰도가 낮으며 .4~.6이면 신뢰도가 있고, .6~.8이면 신뢰도가 높으며, .8~1.0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표 4>과 같다.

< 표 4. 정서 발달 신뢰도 분석 >

설문지 내용	Cronbach's α	해당문항
순수 반응 정서	.849	1, 2, (3), (4), 5, 6
공포 반응 정서	.856	7, 8, 9 10, 11, 12, 13, 14, 15
회피 반응 정서	.845	16, 17, (18), 19, 20
애정 반응 정서	.834	21, 22, 23, 24, 25, 26
사회 반응 정서	.828	27, (28), 29, 30, 31
공격 반응 정서	.841	32, 33, 34, 35
비행 반응 정서	.839	36, 37, 38, 39, 40
전체 정서발달	.804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얻어진 정서발달의 신뢰도 계수는 .804로 나타나 설문지의 표본 적합도가 인정됨을 알 수 있다.

3. 조사 절차

이 연구의 구체적인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받은 설문지를 가지고 대상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협조 및 의뢰를 구한 후,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직접 회수하여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이 가능한 자료들만을 사례별로 전산 입력하여 자료 처리 하였다.

4. 자료 분석

설문지의 응답결과 자료를 회수한 후 거짓문항을 이용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 및 무기입 자료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유효표본만을 코딩의 지침에 따라 부호화(coding)하였다. 그리고 부호화된 자료는 컴퓨터에 개별입력 한 후, 기입오류의 검색이 끝난 자료는 Windows용 SPSS Win 18.0(PASW)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참여유무(참여시간, 참여기간)와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유의수준을 파악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P < .05$ 검증을 하였다.

VI. 연구 결과

1. 토요스포츠 참여유무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참여유무에 따른 정서발달과 정서발달의 각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로자 독립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참여유무에 따른 정서발달 차이>

요인	참여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순수반응정서	참여	220	3.48	.554	3.883***
	비참여	208	3.28	.453	
공포반응정서	참여	220	3.59	.922	2.508*
	비참여	208	3.36	.869	
회피반응정서	참여	220	3.43	.671	3.771***
	비참여	208	3.18	.701	
애정반응정서	참여	220	3.95	.691	3.823***
	비참여	208	3.67	.805	
사회반응정서	참여	220	3.58	.634	3.900***
	비참여	208	3.33	.678	
공격반응정서	참여	220	3.73	.899	2.384*
	비참여	208	3.52	.883	
비행반응정서	참여	220	3.68	.625	3.408**
	비참여	208	3.46	.729	
정서발달	참여	220	3.63	.451	4.834***
	비참여	208	3.40	.535	

*p<.05, **p<.01, ***p<.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요스포츠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는 참여(M=3.63), 비참여(M=3.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발달의 각 하위요인 중 순수반응정서 요인은 참여(M=3.48), 비참여(M=3.28), 공포반응정서에서 참여(M=3.59), 비참여(M=3.36), 회피반응정서 요인에서 참여(M=3.43), 비참여(M=3.18), 애정반응정서 요인에서 참여(M=3.95), 비참여(M=3.67), 사회반응정서에서 참여(M=3.58), 비참여(M=3.33), 공격반응정서에서 참여(M=3.73), 비참여(M=3.52), 비행반응정서에서 참여(M=3.68), 비참여(M=3.46)으로 모든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른 정서발달과 정서발달의 각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독립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표 6. 성별에 따른 정서발달 차이>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t
순수반응정서	남	234	3.37	.54	-.301
	여	194	3.39	.48	
공포반응정서	남	234	3.71	.84	6.121***
	여	194	3.19	.89	
회피반응정서	남	234	3.35	.73	1.225
	여	194	3.26	.65	
애정반응정서	남	234	3.95	.69	3.867***
	여	194	3.66	.81	
사회반응정서	남	234	3.43	.65	-1.107
	여	194	3.49	.68	
공격반응정서	남	234	3.57	.87	-1.557
	여	194	3.70	.92	
비행반응정서	남	234	3.54	.69	-1.124
	여	194	3.62	.71	
정서발달	남	234	3.56	.48	1.689
	여	194	3.48	.54	

*p<.05, **p<.01 ***p<.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를 보면 정서발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공포반응정서에서 남자(M=3.37), 여자(M=3.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애정반응정서에서 남자(M=3.95), 여자(M=3.6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학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표 7. 학년에 따른 정서발달 차이〉

요인	4학년 (n=118) M(SD)	5학년 (n=116) M(SD)	6학년 (n=194) M(SD)	합계 (n=428) M(SD)	F
순수반응정서	3.40(.48)	3.41(.44)	3.35(.57)	3.38(.52)	.652
공포반응정서	3.29(.81) (a)	3.40(.86) (a)	3.63(.95) (b)	3.47(.90)	5.633**
회피반응정서	3.30(.77)	3.22(.59)	3.71(.70)	3.31(.70)	1.716
애정반응정서	3.81(.75)	3.70(.74)	3.89(.77)	3.82(.76)	2.346
사회반응정서	3.35(.63) (a)	3.32(.69) (a)	3.61(.64) (b)	3.46(.67)	9.180***
공격반응정서	3.69(.83)	3.54(.89)	3.65(.93)	3.63(.90)	.813
비행반응정서	3.64(.66)	3.53(.68)	3.56(.73)	3.57(.69)	.815
정서발달	3.50(.51)	3.45(.48)	3.58(.52)	3.52(.51)	.692

*p<.05, **p<.01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를 보면 전체 정서발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포반응정서에서 4학년(M=3.29), 5학년(M=3.40), 6학년(M=3.6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반응정서에서 4학년(M=3.35), 5학년(M=3.32), 6학년(M=3.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공포반응정서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한 결과 4학년·5학년과 6학년 집단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반응정서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4학년·5학년과 6학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3. 토요스포츠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표 8.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요인	40분 /1교시 (n=42) M(SD)	80분 /2교시 (n=38) M(SD)	120분 /3교시 (n=30) M(SD)	160분 /4교시 (n=110) M(SD)	전체 (n=220) M(SD)	F
순수반응정서	3.58(.47) (b)(c)	3.32(.52) (a)	3.79(.60) (c)(d)	3.40(.55) (a)(b)	3.47(.55)	5.708**
공포반응정서	3.65(.88)	3.58(.90)	3.58(1.17)	3.55(.88)	3.58(.92)	.177
회피반응정서	3.58(.70) (b)(c)	3.08(.55) (a)	3.73(.54) (c)	3.41(.68) (b)	3.43(.67)	6.614***
애정반응정서	4.08(.67)	3.81(.59)	4.13(.59)	3.90(.74)	3.95(.69)	1.862
사회반응정서	3.68(.56) (b)	3.34(.78) (a)	3.77(.51) (b)	3.57(.61) (a)(b)	3.58(.63)	3.214*
공격반응정서	3.88(.78) (b)	3.38(.79) (a)	4.05(.81) (b)	3.70(.96) (a)(b)	3.73(.89)	3.727*
비행반응정서	3.69(.80)	3.77(.59)	3.69(.57)	3.65(.63)	3.68(.65)	.309
정서발달	3.73(.42) (b)(c)	3.47(.37) (a)	3.82(.44) (c)	3.60(.47) (a)(b)	3.63(.45)	4.528**

*p<.05, **p<.01, ***p<.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요스포츠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은 40분(M=3.73), 80분(M=3.47), 120분(M=3.82), 160분(M=3.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발달의 각 하위요인 중 순수반응정서는 40분(M=3.58), 80분(M=3.32), 120분(M=3.79), 160분(M=3.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회피반응정서는 40분(M=3.58), 80분(M=3.08), 120분(M=3.73), 160분(M=3.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회반응정서에서도 40분(M=3.68), 80분(M=3.34), 120분(M=3.77), 160분(M=3.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격반응정서에서도 40분(M=3.88), 80분(M=3.38), 120분(M=4.05), 160분

($M=3.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한 결과 전체 정서발달은 80분(2교시) 집단과 40분(1교시)·160분(4교시) 집단, 40분(1교시)·120분(3교시)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시가 긴 집단에서 정서발달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120분(3교시)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발달의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 요인은 80분(2교시)·160분(4교시) 집단과 160분(4교시)·40분(1교시) 집단, 40분(1교시)·120분(3교시) 집단이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회피반응정서 요인은 80분(2교시)집단과 160분(4교시)·40분(1교시) 집단, 40분(1교시)·120분(3교시) 집단의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반응정서 요인에서는 80분(2교시)·160분(4교시) 집단과 160분(4교시)·40분(1교시)·120분(3교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공격반응정서 요인에서는 80분(2교시)·160분(4교시) 집단과 160분(4교시)·40분(1교시)·120분(3교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공포반응정서와 비행반응정서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토요스포츠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표 9.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요인	3개월 이하 (n=66) M(SD)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n=34) M(SD)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n=42) M(SD)	12개월 이상 (n=60) M(SD)	24개월 이상 (n=18) M(SD)	전체 (n=220)	F
순수반응정서	3.59(.48) (b)	3.65(.61) (b)	3.40(.63) (b)	3.31(.53) (a)	3.41(.44) (a)	3.47(.55)	3.211*
공포반응정서	3.48(.97)	3.59(.86)	3.52(.86)	3.52(.91)	3.62(.86)	3.58(.92)	.988
회피반응정서	3.48(.64)	3.22(.65)	3.48(.69)	3.52(.54)	3.24(1.04)	3.43(.67)	1.597
애정반응정서	3.94(.67)	4.05(.64)	3.90(.66)	4.02(.75)	3.72(.73)	3.95(.69)	.863
사회반응정서	3.65(.55) (b)	3.66(.65) (b)	3.55(.51) (b)	3.60(.73) (b)	3.16(.67) (a)	3.58(.63)	2.477*
공격반응정서	3.89(.76)	3.90(.84)	3.49(.76)	3.53(.94)	3.73(.90)	3.76(.90)	1.835
비행반응정서	3.75(.70)	3.60(.60)	3.74(.68)	3.57(.63)	3.87(.55)	3.68(.65)	1.247
정서발달	3.68(.39)	3.67(.49)	3.58(.45)	3.62(.45)	3.55(.58)	3.63(.45)	.547

*p<.05, **p<.01, ***p<.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요스포츠클럽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를 보면 정서발달의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에서 3개월 이하(M=3.59),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M=3.65),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M=3.40), 12개월 이상 (M=3.31), 24개월 이상(M=3.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회

반응정서 요인은 3개월 이하($M=3.65$),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M=3.66$),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M=3.55$), 12개월 이상($M=3.60$), 24개월 이상($M=3.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정서발달 전체 점수와 각 하위요인 중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한 결과 순수반응정서요인은 12개월 이상·24개월 이상 집단과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집단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반응정서 요인은 24개월 이상 집단과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12개월 이상·3개월 이하·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집단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12개월 이상보다 12개월 이하의 집단이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의 집단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V.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토요일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4학년-6학년 중 토요일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요일스포츠 참여유무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토요일스포츠 참여유무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발달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순수반응정서,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김성현(2008), 임광조(2002)의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나 이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오신영(2015)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정서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참가자가 비참가자보다 평균적으로 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춘우(2012)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및 주말 스포츠프로그램 참여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아동을 비교한 결과 참여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반면 기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육활동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광호(2010)의 체육 감상수업이 중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참여한 학생들의 정서가 더 발달된다고 보고하였다. 강동호(2003)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의 경기종목에 따라 정서발달은 정서반응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참여한 학생의 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났고 개인 종목보다 단체 종목에 참여한 학생의 정서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내듯이 스포츠 활동의

경험이 아동기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면 정서발달 전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공포반응정서와 애정반응정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공포반응정서와 애정반응정서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신영(2015)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정서발달(공포반응, 공격반응, 회피반응, 사회반응, 애정반응) 정도가 여학생의 발달 정도보다 높게 나타나 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학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는 전체 정서발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포반응정서에서 4학년·5학년과 6학년 집단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반응정서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4학년·5학년과 6학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6학년의 정서반응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광조(2002)의 연구를 보면 성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가 나타났고 학년에는 5학년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지연(201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정서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발달의 개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므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는 성별에 따른 단순 차이분석으로 단정 짓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령이 성장함에 따라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토요일스포츠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토요일스포츠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포반응정서와 애정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

이를 파악한 결과 전체 정서발달은 80분(2교시) 집단과 40분(1교시)·160분(4교시) 집단, 40분(1교시)·120분(3교시)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시가 긴 집단에서 정서발달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160분(4교시) 집단보다 120분(3교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서발달의 하위요인인 순수반응 정서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으나 120분(3교시)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반응정서에서도 120분(3교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태호(2013)의 연구에서도 2시간 이상의 참여집단의 정서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하며 김동천(2004)의 연구에서도 순수반응정서, 공포반응정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이 연구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또한 조우리(2016)의 연구에서는 토요스포츠 참여시간이 긴 집단(3시간이상)이 짧은 집단(1시간 이상~2시간 미만)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 연구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혜원(2003)의 연구에서 정서발달의 하위요인 마다 3시간 이상 참여보다 미만을 참여했을 때 정서발달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이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발달을 위해 토요스포츠 활동을 아동기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간을 적용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 마련 및 연구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토요스포츠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

토요스포츠에 참여 한 학생들의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서발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와 사회반응정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여기간에 따른 순수반응정서 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12개월 이상·24개월 이상 집단과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집단 집단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반응정서 요인은 24개월 이상 집단과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12개월 이상·3개월 이

하·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집단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12개월 이상보다 12개월 이하의 집단이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의 집단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는 김태호(2013)의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학생의 참가정도(교시, 빈도, 기간)에 따라 정서발달에 차이는 있었지만 기간이 길다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하였고 우종열(2003)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가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안정성과 자율성, 사교성 등의 정서발달이 높지만 49개월 이상의 집단보다 25~36개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보고되어 이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신영(2015)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가 정서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특히 참여빈도가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동천(2004)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기간이 긴 집단이 정서발달의 평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고등학생으로 연구 집단의 개인적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혜원(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라 정서발달과 대인관계지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참가기간에 따라서 정서발달의 비행반응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 집단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토요스포츠 참여기간은 초등학생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토요스포츠참여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 전라남도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6학년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토요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정서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전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정서발달(순수반응정서, 공포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애정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 비행반응정서)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시간에 따른 정서발달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발달의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 회피반응정서, 사회반응정서, 공격반응정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기간에 따른 정서발달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발달의 하위요인인 순수반응정서와 사회반응정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초등학생의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는 신체적, 정서적인 경험을 통해 건강

한 신체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초등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면 정서발달에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 언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토요스포츠 활동참여에 따른 정서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보완점과 토요스포츠 활동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서발달의 독립변수는 토요스포츠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아동기의 정서발달에는 지도자의 지지,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등 개인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자료수집과 통계방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다차원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는 토요스포츠 활동과 정서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향후 스포츠 활동에 다양한 교수법(심리, 특수교육 등)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면 보다 다차원적이고 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특기개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초등학생의 여가 활용에 대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효과

성 및 지속성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기의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는 정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의 신체, 정서, 심리적인 발달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영역의 교수법을 적용하여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후속연구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학교스포츠클럽 종합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교육과학기술부(201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 강한경(1996). 태권도 수련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호(2010). 체육감상수업이 중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도전활동중심으로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동호(2003). 스포츠참가가 중학교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천(2004). 고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2008).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이 신체활동의 즐거움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장훈(200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중학생들의 여가활용방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호(2013).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축구 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주(2004). 주 5일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여가활동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교
- 구지연(2012). 초등학생 창작무용 참여태도가 창의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명중학교(2003). 토요일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주5일제 수업제 운영”.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2). 토요 스포츠강사 발대식 및 업무협력체결 보도자료
- 성태제(1996).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양서원.
- 오신영(2015).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참여가 정서발달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경(2013). 주5일수업제 운영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덕(1980). 아동학. 서울 : 수학사.
- 이춘우(2012).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신체활동 및 주말 스포츠클럽 참여가 정서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아(2010). 발레 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광조(2002).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열(2003). 초등학생의 스포츠 참가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춘(2003). 학교 주5일제 수업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우리(2016). 중학생의 토요일스포츠데이 참여정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한국 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강(2012).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학교 토요일스포츠데이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외(1985). 현대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용각(1998). 스포츠 참여 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지 9(1), 113 ~ 131
- 정혜원(2003). 아동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 지향성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Y: Magraw-Hill Inc.
- Lewin, K.(1951). Field theory in social Social Science Selected theoretical
papers. NY : Harper.
- Freud, S.(1971).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ond Free. (J. Strachey, ED.) Hoganh Press.
- Jersild ; A. T.(1950). child Psychology. NY : Prentice-Hill, co.
- Plutchik.(1980). Emotions evolution and adapetie Precesses. in M.D.
Amold(ED). Feeling and Emotions. NY : Academic Press. P.
3-24
- Rapaport, D.(1942). Emotions and Memory. NY : Magrow-Hill Ins.
- Reinert, H. R.(1976). Children in Contlict. Saint louis : Mosby co.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 NY : Magraw-Hill Inc.
- Mandler, H. & Johnson, N.(1997). Remembrance of thingsparsed : Story
Structure and Recall. Cognitive
Psychology.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토요스포츠 참여가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생 여러분들이 즐겁고 명량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나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 목적에만 사용 할 것이며, 절대 여러분의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답변에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
석사과정 박 준 혁

귀하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기재 또는 ○표 하여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

- ① 남학생 ② 여학생

2. 학생의 학년은? ()

-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지금 현재 토요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3번 문항에서 토요스포츠 참여자만 답 하세요

4. 토요스포츠에 참여한다면 1일 활동 참여시간은? ()

- ① 40분(1교시) ② 80분(2교시) ③ 120분(3교시) ④ 160분(4교시)

5. 토요스포츠에 참여 하였다면 참여기간은? ()

- ① 3개월 이하 ②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③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④ 12개월 이상 ⑤ 24개월 이상

다음은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중간 정도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조금만 당황해도 말을 더듬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높이 쌓여있는 물건을 보면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착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바른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기계 들이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천둥, 번개가 치면 혼자 있기가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물이 깊은 곳을 무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면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낯선 사람이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큰 개를 무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귀신, 유령, 이야기를 무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피나는 동물을 보면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남 앞에서 서는 게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싸우고 나면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쉽게 빨개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이 친구를 칭찬하면 그 아이가 괜히 미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이성 친구와 노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아끼는 물건을 남이 만지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선생님이 나만을 칭찬해주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선생님 야단을 맞으면 밥을 먹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친구들과 자주 다툰다.	①	②	③	④	⑤
28.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고집이 세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욕을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개미를 보면 밟아 죽인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내 맘대로 안 되면 물건을 차거나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작은 일에도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폭력 영화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거짓말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시험 볼 때 친구의 답안지를 몰래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